

진안-무주권
고창-부안권

국가 지질공원 인증 '착착'

전북도, 제2차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 개최 2개 권역 지질명소 선정

진안-무주권, 고창-부안권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인증 신청 준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 부지사 주재로 2개 권역 지질명소 선정과 국가지질공원 인증·운영 전략 강구를 위한 제2차 지질공원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질공원, 문화, 역사 및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운영의 핵심 요소인 권역별 지질명소 선정방안을 논의해 최종 지질명소 후보를 선정했다.

진안-무주권은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수선루, 천반산, 길버트형 삼각주, 내구천동, 외구천동, 향적봉, 구상화강편마암, 적상산, 칠연계곡 등이다.

고창-부안권은 선운산, 병바위, 운곡습지, 소요산, 하전갯벌, 구시포, 채석강, 적벽강, 대항리 화강편마암, 모항, 술섬, 위도 등이다.

이번에 선정한 최종 지질명소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 조만간 권역별 지질공원의 명소로 확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지질공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대 이종덕

교수(고생물학)를 부위원장으로 한 자문활동 체계도 구축했다.

이종덕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들과 힘을 모아 진안-무주권, 고창-부안권 지질공원이 국내 지질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지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권역별 지질명소 후보 선정과 전북도 지질공원 육성과 발전에 대한 자문활동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인행기자/ih0082@hanmail.net